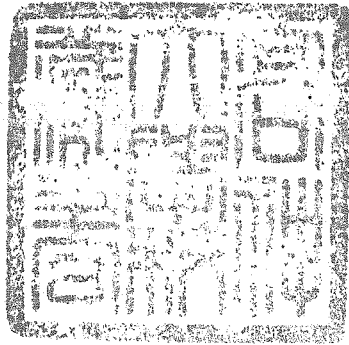


1994
270.6
5/17

1994 學年度
碩 士 學 位 論 文

宗 教 改 革 이 獨 逸 社 會 變 革 에 미
친 影 響 에 關 한 小 考.

- 16 - 17세기 近代 獨逸 社會를 中心으로 -



總 神 大 學 神 學 大 學 院

神 學 科 歷 史 神 學 專 攻

尹 鍾 訓



고신대학교



DM00001592

1994

宗 教 改 革 이 獨 逸 社 會 變 革 에 미
친 影 響 에 關 한 小 考.

- 16 - 17세기 近代 獨逸 社會를 中心으로 -

指導教授 : 박 건 택

이 論文을 神學碩士(M. Div)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4 年 2 月


總 神 大 學 神 學 大 學 院


神 學 科 歷 史 神 學 專 攻

尹 鍾 訓

尹鍾訓의 神學 碩士(M.Div) 學位 請求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 바 거 래 

審査委員 박 영 규  Park

審査委員 심 창 위  Chi

1 9 9 4 年 2 月

總 神 大 學 神 學 大 學 院

感謝의 글

총신에 발을 내 딛은지 어언간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던가! ... 신학과 역사라는 '대 명제' 앞에 서서 고뇌하며 몸부림쳤던 순간들이 뇌리에 스쳐 지나간다.

죽음의 극한 상황에까지 처했던 한 여인의 입재의 고통과 눈물이 된 유언의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날 내가 7년이라는 목회자 후보생의 과정을 마치게 되었다.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지극하신 사랑이 아닐 수 없다.

먼저, 지금까지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바이다. 그리고 날 낳으시고 길으신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며, 학문적인 깨달음과 도전을 제공하시며 이 글을 심사해주신 박건택교수님을 비롯하여 심창섭교수님과 박용규교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 글을 쓰기까지 아껴주시고 격려하셨던 은석교회 김진웅목사님과 은혜필장로님께 감사를 드린다.

또한 3년동안 M.DIV과정을 마치기까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극동방송사업단 사장 주광조 장로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나를 낳아주시고 신학의 바른 길로 가도록 유언하셨던 故 김형배 집사님께 삼가 이 글을 바칩니다.

目 次

I. 問題 提起	2
1. 序論	2
2. 연구 범위와 전개 방법	6
II. 1518년 以前의 獨逸의 時代狀	7
1. 政治的 狀況	7
2. 經濟的 狀況	13
3. 教會의 狀況	22
III. 독일 종교개혁의 사회운동	30
IV. 宗教改革 遺産(The Reformation Heritages)이 獨逸 社會變革에 미친 영향	37
1. 30年 戰爭의 직접적 계기	37
2. 經濟的 영향	41
3. 기타 諸 영향	45
V. 結 論	47
VI. BIBLIOGRAPHY	51

I. 문제제기

1. 서론

서구의 역사라는 커다란 망망대해를 고찰해볼 때, 역사의 큰 물줄기의 흐름은 다름아닌 Greece 문명이요, 중세에서 근세로의 전환기(혹은 이행기)인 Renaissance, Reformation, 그리고 근대사에 일어났던 제 혁명이었다.

그 중 일반적으로 종교개혁이란 단어를 설정할 때는 당대의 선각자였던 Martin Luther(1483-1546)가 유럽 문명의 정신적 지주였던 카톨릭 교회에 대한 부패성에 대하여 1518년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제시하므로 당시의 신학과 교황을 비롯한 교직자들의 심각성을 폭로하고 “이신득의”라는 성경적 진리를 새롭게 대안으로 제시한 사건으로만 설명되어져 왔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단순히 당시의 문제점을 고찰한 한 사람에 의해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다. 왜냐하면 15C - 16C사이에 일어난 일련의 역사의 흐름들을 살펴볼 때, 종교개혁이라는 명제는 당시의 시대적 요청이며 당연한 시대적 귀결점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Peter Gay교수는 “나무는 잘 말라있었고, 부식들도 준비되어 있었다. 다만 필요한 것은 그것을 불붙일 사람이었다”¹⁾고 설파할 정도로 1518년 이전의 카톨릭 교회의 모순점과 타락양상은 심각했으며, 종교개혁의 분위기는 술렁이고 있

1) Peter Gay & R. K. Webb., Modern Europe to 1815 (박무성 역, 법문사 : P.171)

었으며, 개혁을 위한 준비는 끝이 났고 이미 성숙단계에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따라서 종교개혁은 시대의 요청에 따라 16세기에 독일 즉 신성로마제국에서 일어나서 이베리아 반도 이외의 전 유럽으로 번져갔다.

종교개혁의 바탕을 형성하고 있는 사상적 기초와 형성과정은 십자군운동 이후에서부터 봉건제도(feudalism) 몰락과정, 르네상스의 지대한 영향이었지만, 대체적으로 종교개혁의 효시는 일찌기 14세기 말엽 영국 옥스포드대학 교수였던 존 위클리프로부터 시작되었다. 화체설을 부정함으로써 결국 대학에서 쫓겨나게 된 위클리프의 수난은 종교개혁을 예시한 첫 신호였으며²⁾, 30년 후에 콘스탄츠 종교회의(Council of Constant(1414-1417)에 의하여 그의 무덤이 파헤쳐서 시체를 불살라 그 재를 Swift 강에 던져 버릴 정도로 비참한 최후를 마침으로써 종교개혁의 불씨는 이미 타오르기 시작했던 것이다.

종교개혁 前史에서 반드시 언급되는 또 하나의 인물은 보헤미아 왕국의 수도 Prague대학의 교수였던 존 후스(John Hus)였다³⁾. 후스 교수는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신학자였다. 따라서 그도 역시 대학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파문당하게 되었다. 그후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정죄한 콘스탄트 종교회의에서 후스

2) 그는 1382년 대학에서 추방당하고 2년 뒤에 사망하였으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다음 서적을 참조할 것.

E.S. 모이어, 곽안전 역, 인물중심사. (서울 : 대한 기독교서회, 1980),

pp. 270-277

L. Thorndike, The History of Medieval Europe pp. 563-570.

W. Walker, The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Charles Scribner' Sons : New York, 1970) pp. 163-229.

3) 노 명식, 종교개혁의 사회적 정치적 배경 「기 상」(1978년 10월호) p.24

는 이단선고와 함께 분형(焚刑)되었으며, 이 위클리프와 후스의 교황청 부패와 분열속에서의 교회개혁운동은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후대의 사가들은 그 이유를 루터 이전의 개혁가들은 종교개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시대를 가지지 못했던 시대적인 요인으로 설명하며, 이에 대하여 노명식 교수는 이르기를,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해가 제 1차 이탈리아 전쟁이 끝나는 이듬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마틴 루터가 던진 폭탄은 그보다 140년 전에 위클리프가 던진 것보다 결코 더 강력한 것이 아니었다. 또 루터의 사람됨이 위클리프나 후스보다 더 혁명적이거나 더 위대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역사적 조건은 루터에게 한없이 유리하였다. 루터의 폭탄은 비록 그 성능이 약하더라도 터지기만 하면 유럽 일대를 불태울 수 있는 역사적 조건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⁴⁾.

이러한 성숙단계에 놓여있는 개혁의 기운을 십분 활용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운동은 단순히 종교적 개혁에만 제한된 의미를 갖는 사건이 아니고, 중세의 정서적 지주였던 카톨릭 문명권의 정치, 경제, 사회, 사상 등 폭넓은 부분에서의 일대 혁신(革新)이었으며, 개혁(改革)이었다.

이에 대한 Gehard Ritter교수는 “16세기에 있어서 유럽의 재구성 : 종교개혁시대에 있어서 교회의 변화와 정치의 변화”(Die Neugestaltung Europas im 16. Jahrhundert : Die Kirchlichen und Staatlichen Wandlungen im Zeitalter der Reformation und der Glauben skämpfe) 라는 글을 발표하면서 그 말의 의미가 폭넓게 사용되어 종교개혁이란 그 당시의 특징으로 나타난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4) Ibid., p. 31

생활을 재구성한다는 보다 폭넓은 의미로 사용되었다⁵⁾.

이러한 맥락에서 종교개혁을 분석해 볼 때 R.H. Bainton이 주장한 “종교개혁은 중세의 사회체제와 교회구조를 산산조각으로 부서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종교부흥을 가져왔고 기독교를 갱생시킨 종교부흥 운동이다”⁶⁾라는 그의 결론적 주장만을 전적으로 수렴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앞에 고찰한 내용을 일축하는 다시 말하면 종교개혁의 범위와 한계를 제한하는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물론 배인톤의 주장은 종교개혁 운동에 대하여 내적인 측면에서 시각을 형성할 때에는 타당한 주장이다.

그러나 종교개혁사에 관한 개론적 문헌에서는 일반적으로 역사적 배경을 크게 정치적, 경제적, 정신적, 문화적 배경으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이러한 배경은 서로가 떨어질 수 없는 역학관계를 유지케 한다.⁷⁾ 그러므로 우리의 시야를 확대해서 배인톤의 종교개혁의 내적 측면이라는 종래의 연구되어온 측면에서 탈피하여 폭넓게 형성되고 특히 독일의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크게 미친 종교개혁을 살펴 봄으로써 종교개혁이 끼친 지대한(독일사에 있어서) 영향을 고찰하는 것이 필자가 본 논문을 쓰게 된 주요 동기이며, 연구 목적인 것이다.

5) E. H. Harbison, The Age of the Reformation (Cornell University Press) p. 1

6) R.H. Bainton, The Reformation of 16 Century (London, Hodder Stoughton, LTD., 1957) p.3

R.H. Bainton, Studies on the Reformation, (Boston : Beacon Press, 1963) pp.104-106

7) 이에 대한 개론적인 문헌들은 다음과 같다

T. M. Lindsay, A History of Reformation (Edinburgh, 1953)

J. P. Whitney, The History of Reformation (London, S.L.C.K., 1958)

H. J. Grimm, The Reformation Era 1500-1600 (New York, Macmillan, 1953)

2. 연구범위 및 전개방법

필자는 이 방대한 종교개혁 운동을 전부 논할 수 없고, 다음과 같이 본 논문의 연구범위를 국한시키고자 한다.

첫째, 본 논문에서 연구코자 하는 시대 한계는 15세기부터 16세기까지 독일에서 발생한 종교개혁 전후로 국한시킨다.

둘째, 종교개혁의 발생이전의 시대적 배경을 정치적 상황, 경제적, 종교적, 사회적 상황에 한정시킨다.

셋째, 이로 인한 독일사회에 끼친 영향을 연구함에 국한한다.

이상 몇가지 연구 범위가 설정됨에 따라서 전개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서 종교개혁에 대한 간단한 언급을 하고, 제 2장에서는 1518년 이전 사회의 구조를 논함에 있어서 독일 정치적 상황에 있어서의 주변 국가와의 관계와 封建制度의 몰락 이후에 상업의 발달로 인한 경제적 변화과정, 또한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서 사회계층의 형성, 그리고 교황청의 부패상을 고찰할 것이다.

3장에서는 독일 종교개혁의 사회적 측면을 살피되, 특히 마르틴 루터와 당시 사회 운동가였던 토마스 뮌처를 중심으로 살필 것이다.

4장에서는 종교개혁의 유산으로 인한 30년 전쟁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과정을 고찰하고, 경제적 분야에서의 자본주의 발달에 끼친 영향을 소급하고, 독일 여러 분야에 끼친 영향을 논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결론으로서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고 결론을 내림으로써 본 논문을 맺고자 한다.

II. 1518년 이전의 독일의 시대상

1. 정치적 상황

15세기에 들어서 민족국가(The Nation States)들의 등장하므로 로마 카톨릭의 교황절대주의(Absolutism of Pope)는 서서히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일찌기 교황 이노센트 3세(Inocent III, A.D 1160-1216)는 교황은 태양이요, 왕은 달이라고 주장함으로써⁸⁾ 교황권과 교황주의 교회의 절대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고 보니파스 8세(Boniface VIII, 1234-1303)가 1302년에 선포한 "Unam Sanctam<유일의 성>" 역시 교황의 우위권 내지는 교회의 우위권을 주장하는 바 "국가가 교회 밑에 들어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중세 말기로 접어들어 가면서 Dante는 그의 "왕정론"<De Monarchia, ca. A.D. 1310>에서 왕정국가의 독립적 존재 이유를 주장하였고, 오컴 역시 국가의 독립성과 그 필요성을 지적하였다.⁹⁾ 그 누구보다도 파리대학의 학장이었던 마르실

8) Kenneth Latourette, A history of Christianity, Vol. I (New York: Harper & Row, 1975) p. 483.

9) Ibid., p. 487.

리우스(Marsilius of Padua, A.D. 1275 - 1342)의 「Defensor Pacis, 1324, 평화의 수호자」는 당시 교황 중심의 로마 카톨릭 교회를 인정하면서도 교회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법치국가의 존재 이유를 갈파(喝破)하였다.

Marsilius의 이 작품은 A.D. 1326년경 로마 교황에 의하여 정죄된 책으로 어거스틴의 「De Civitate Dei, A.D. 413, 신국론」과 더불어 위클리프, 후스, 루터 등의 두 왕국사상을 불러 일으켰으며 당시 민족국가였던 독일의 탄생을 도왔다.¹⁰⁾

따라서 이와같은 요인은 로마와 바티칸의 획일주의 내지는 교황중심의 제국주의는 무너지고 각 나라들이 교황청에 반대하여 버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단락 된 후 민족국가 단위로 신앙고백서들이 작성된 것 역시 민족국가들의 등장에 힘입은 것이었다¹¹⁾.

이와 같은 입장은 Edward McNall Burns에게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그는 프로테스탄트 반란¹²⁾의 정치적 운동이 일어난 두가지 요인으로써,

첫째는 북유럽에서의 민족의식의 성장,

둘째로는 전제정부의 등장이다.¹³⁾

이러한 민족의식은 중세 독일 즉 신성로마제국의 정치적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중세 독일의 정치적 이상은 소위 신성 로마제국을 주축으로 하는 세계 국가 수립이었다. 이와같은 꿈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대 군주들은 이탈리아의 경영

10) 이 형기, 종교개혁의 사회사적 배경, 「기상」 1986년 10월 p. 19

11) Ibid., p. 20.

12) Protestant Revolt 는 프로테스탄트의 종교개혁이라는 어구가 더 자연스럽다. 그러나 카톨릭에게 있어서는 그성은 하나의 "Revolt"였던 것이다.

13) Edward McNall Burns, Western Civilization, (New York : W. W. Norton and Company, INC). p. 445.

에 몰두한 나머지 봉건제후들에게 자기 세력 확장의 기회를 주게 되어 지방분권적 봉건국가체제로 굳혀 버리고 말았다.

따라서 신성 로마제국의 교황권은 유명무실에 가까울 정도로 그 권한은 극히 미약한 것이었다. 962년 오토대제(Otto der Große, 912-973)¹⁴⁾가 즉위한 이후 프리드리히 II세(Friedrich der Zweite, 1215-1250)까지 그나마 신성 로마제국의 황제로서 그 체면을 유지할 수가 있었으나 프리드리히 II의 외아들인 콘라드 IV(Konrad der IV, 1250-1254)가 사망하자, 왕통이 끊어져 소위 大空位 時代(Interregnum, 1254-1273)를 초래케 하였고, 大諸侯들은 서로 앞을 다투어 제국의 관직과 봉토(Fiefs)를 세습하고 국왕이 가지고 있던 제특권을 빼앗아 독립하여 領邦國家(Landesstaat)를 형성하였다. 이 결과 독일제국 내에는 300개 이상을 헤아리는 영방국가가 탄생하였고 반면에 황제권은 겨우 自家의 영지와 약간의 제국도 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독일의 제 봉건 제후들은 일단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기반을 견고히 다듬은 다음, 권세욕과 명예욕을 충족시키려는 야망을 품고 황제의 지위를 향유하기 위해 맹렬한 투쟁을 전개했다. 그것이 1356년 카알 IV(Karl IV, 1347-1378)에 의해 선포된 금인헌장(金印憲章: Die goldenen Bulle)으로 구현되었다.¹⁵⁾ 이리하여 신성로마제국의 황제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선제후에 의해서 선출되게 되었다.¹⁶⁾

14) 오토대제는 951년 이탈리아의 제후들이 약한 황제를 자기 뜻대로 움직이고 있을 때 이탈리아 원정에 성공하였으나, 독일의 내란으로 인해 귀국후 10년만에 로마로 진격해 962년 2월 교황 12세(John XII)에 의해 황제 제관식을 올림으로서 "Holy Roman Empire"의 시초를 이룬다.

15) 홍치모, 종교개혁사(서울:성광문화사, 1979) pp. 50-51.

16) Thomas M. Lindsay, A history of the Reformation (Edinburgh, 1953)

p. 35. 7인의 선제후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7명의 선제후 중에 세 사람이 종교 제후였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종교세력이 강했던 것이다. 따라서 황제의 권한은 이들 선제후들의 조종에 따를 수 밖에 없었고, 황제권은 실질적으로 무력하였던 것이다.

바낙러프(G. Banaclough)는 막시밀리안 1세(Maximilian I, 1493-1519)가 즉위할 때 (1493)까지의 제국의 역사는 타락, 허약, 분열의 슬픈 이야기였다고 말한다¹⁷⁾. 이와 같은 상황 아래에서 독일은 교황청의 착취의 좋은 대상이었으며 교황청의 쟁소라고까지 불리워졌다.

앞서 언급한 바 대로 이러한 상태에 독일 인문주의자들의 민족국가의식이 급성장하므로써 당시 황제였던 Maximilian I에게 독일통일의 새로운 돌파구를 수립해 주기를 희망했던 것이다. 이러한 열망이 마인쯔 대주교 베르롤트(Berthold, 1484-1504)의 노력으로 실현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황제 Maximilian I 은 1495년 독일 제국의 부흥을 위해 보름스(Worms)에서 제국회의를 소집하여 개혁안을 결의하였다. 그 개혁안은,

- a. 영방간의 싸움을 없애려는 영구 평화령.
- b. 제국 전체에 유효한 제국 재판소 설치.
- c. 모든 영방을 통일할 제국 정부 수립.
- d. 황제의 징세권을 회복하려는 일반 조세제.
- e. 제국회의의 설치 등이다. 그러나 마지막 제국회의에 만이 그대로 실현되

Elbe 강 주변의 Bohemia왕, Saxon 공, Brandenburg 선제후,
Rhine강 주변의 Mainz 帝 領伯(the Count Palatine of the Rhine).

17) G. Banaclough, The Origin of Modern Germany (Oxford, Basil Black Noll, 1957) p. 355.

었고, 나머지는 황제나 제후 모두가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였을 뿐 독일 전체의 이익을 도의시킨 결과로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것은 결국 “황제권의 재흥의 마지막 시도가 실패하는 기록이요, 중세를 통해 유럽전체에 미쳤던 보편적이고 통일적인 권위가 개별적이고도 지방적인 영방국가들의 힘 앞에서 무너지는 기록이다¹⁸⁾.

이러한 상황은 당시의 독일 황제 카알 5세(Karl V, 1519-1556)가 친교황적이었다는 사실로 더욱 강화되었다.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Habsburg) 왕실과 에스파니아(Espana)의 왕실 간의 혼인으로 말미암아 카알 5세는 에스파니아왕(카를로스 1세)이었다가, 1519년 독일 황제에 선출되었고, 그후 그는 유럽 내에서만 해도 오스트리아, 보헤미아, 에스파니아, 남부 이탈리아와 시칠리아, 네덜란드 등을 영유하는 강대한 군주가 되었고, 하나의 거대한 제국을 건설할 형세에 있었다. 이에 대하여 강력한 저항과 반격을 가한 것이 프랑스의 프랑스와 1세(1491-1547)로써, 양자의 대립은 특히 이탈리아에서의 패권쟁탈에 있어서 격심하였으며 철저한 카톨릭인 에스파니아 왕실 출신의 모후(母后)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카알 5세는 프랑스와 I를 물리치고 이탈리아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 친교황적이었다¹⁹⁾.

또한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 있어서 카알 5세는 선제후(Elector)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했다. 당시 카알 5세는 자신의 황제 즉위를 위해 재벌이었던 퓨거(Fugger)家로부터 막대한 자금(600,000 Gulden)을 차입하여 그 돈으로 선제후들을 매수하였다.

18) 노 명식, 사회적 정치적 배경, op.cit., p. 30.

19) 민 석홍, 서양사 개론, (서울 : 삼영사), 1988, p. 379

당시 쾰저가의 글에는,

“분명히 폐하께서는 臣의 원조가 없었던들 신성 로마제국의 제위에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臣이 불란서 왕의 요구에 응했다라면 臣은 지금보다 더 많은 돈과 토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폐하께서는 얼마나 곤란했을 것인가라는 것을 잘 아실 것이 아닙니까?²⁰⁾”라고 왕에게 하소연 하는 말을 살펴 보면 알 수 있듯이 당시에 카알 5세는 당시 재벌이었던 쾰저가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차입함으로써 그의 세력 기반을 구축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성장한 카알 5세는 프랑스로 프랑스와 I 의 침입을 막기 위한 전쟁에 국력을 소모하였으며, 설상가상으로 동방의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한 오토만 터어키(Ottoman Turks)는 프랑스를 호응하면서 독일의 변방을 위협하였고 북쪽 이탈리아의 지배를 둘러싸고 교황과의 미묘한 관계에 놓여 있었다²¹⁾.

Wallace K. Ferguson과 Geoffrey Bruun이 잘 관찰한 것과 같이²²⁾, 카알 5세는 네덜란드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독일이나 이탈리아에 대해서는 문의한이었고 非독일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독일 사회는 혼돈으로 빠졌고 독일 국민들은 당시에 발생한 루터의 종교개혁을 그들의 반 황제주의와 결부시키는 결과를 초래케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뉘렘베르크, 마그데부르크, 프랑크푸르트, 울름 등 8개의 기

20) 김성식, 종교개혁의 역사적 배경, p.39 <신학논단> 9. 10집 합본.

21) 지 인성, 16세기 종교개혁의 사회적 배경에 관한 연구, (한신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p.11

22) Wallace K. Ferguson & Geoffrey Bruun, A Survey of European Civilization Vol. II p.393.

타 도시국가들은 당시 사회적 불안, 종교적 부패, 나아가서는 제국의 통일에 아랑
곳 하지 않고 카알 5세의 영향권에서 독립했으며, 로마의 세력권으로부터도 자유
로울 수 있는 민족국가적 특징을 보였고 무엇보다도 독일의 도시민들은 집권층과
영주들과 대립하였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종교개혁이 불붙자마자 마른
숲을 태우는 불길처럼 확산되었다²³⁾”라고 Jensen은 언급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
펴 바와같이 당시 독일의 정치적 불안과 시대 정황은 종교개혁의 시발점을 알리
는 조종을 시급히 알리게 되었던 것이었다.

2. 경제적 상황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 유럽의 경제적 상황은 중세 주종제도
(Vassalage)의 사회경제적 기반으로서 봉건사회의 핵심을 이룬 장원제도(Manorial
System)가 몰락하고, 상공업 중심의 도시사회로 변화하는 과도기였으며, 중세의
봉건사회에서 근대 시민사회로의 이행하는 변천과정이었다.

이러한 변화무쌍한 상황속에서 가장 불만이 많은 계층은 농민이었으며, 그래서
다류(多類)의 도시 상공인들을 포함한 농민들의 운동이 계속 분출되었던 시기였다

24). 이러한 봉건제도의 붕괴원인은 아직까지 연구대상이며 논쟁거리이지만, 대체
로 도브(Maurice Dobb)와 스위지(Paul M. Sweezy)의 논쟁²⁵⁾으로 축소시킬 수가 있

23) De Lamar Jensen, Reformation Europe (Toronto : D.C. Health &
Company), p. 33.

24) 여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참조.

Harold. J. Grimm, op. cit., p. 5 과 Jensen, op. cit., p. 5를 참조

다.

Dobb에 의하면 장원제도를 해체시킨 결정요인으로서 생산양식으로서의 봉건제도 (Feudalism)의 비능률성과 지배계급의 수입 증가의 욕구증대를 들고 있으며 봉건 제도 해체는 내부적 요인이라고 설파함에 반대하여, Sweezy는 상업의 발달, 시장의 확대, 화폐 사용의 증가, 도시의 성장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붕괴되었다고 주장하였다²⁶⁾.

먼저 1517년 당시의 경제구조와 상황을 이해하기에 앞서 중세 유럽의 경제구조와 그 변천 과정을 살펴 보기로 하자.

중세의 경제구조는 크게 이질적인 두개의 경제구조로 형성되어 있었다. 그 중 하나는 중세 전기에 지배적인 장원제도(Manorial System)였고 다른 하나는 중세 후기를 특징 짓는 '도시경제'였다²⁷⁾. 장원경제는 농업을 위주로 하고 장원을 단위로 하며, 영주의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는 폐쇄적인 자급자족 경제체제를 말하는 것이고, 도시경제는 상공업이 출현함으로써 나타난 교환경제로써 동직자(同職者)의 영리로 결속된 경제체제를 의미하였다. 즉, 장원경제는 장원을 기반으로 하는 대토지 소유자인 영주(Lords)와 봉건농민(Peasants)과의 대립관계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²⁸⁾. 농민들은 봉건적 토지 영주의 지배하에 농노와 다름없는 신분으로

25) Maurice Dobb, Studies in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1947)

26) 민 석홍, 서양 근대사 연구, (서울 : 일조각, 1972), pp. 22-31.

27) 조 기준, 신 경제사, (서울 : 일신사, 1972) p. 137.

장원이란 영주가 영주의 관심에서 비로소 형성된 것이 아니라, 자연히 성장한 촌락을 영주가 홀로 점유함에 따라 혹은 촌락 내에서 영주권이 발생, 성장함에 따라, 후에 이 촌락을 단위로 형성되어진 동일한 유기적 소영지 집단을 의미한다.

28) 장원이 봉건적 대토지 소유로서 다른 형태의 대토지 소유와 구별되는 이 유 농노적 농민의 생산노동에 의해서 경영되는데 있다.

예속되어 있었다. 농민들은 영주로부터 약간(약 300 morgen)의 토지를 대여받는 댓가로 각종의 봉건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 실패를 들자면, 농민들은 매주 2-3일은 영주의 직영지에 가서 무상으로 노동해야 했으며, 영주의 허가없이 장원을 이탈하거나 결혼도 할 수 없었으며, 결혼이 허용될 경우에는 혼인세(Formarriage)를 내어야 할 정도였다. 영주는 장원내에서 사법권과 행정권을 동시에 장악하고 있었으므로 당시의 민요에서 농민을 가르켜 「빨없는 소」라고 부를 정도였다²⁹⁾.

Edward McNail Burns에 의하면 당시 소작농(Peasant)의 생활상태는 비참하였다. 파종기에나 수확기에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땀을 흘려야 했으며, 그들의 노동에 대한 보상은 거의 없었다. 그들의 방바닥은 거의 땅바닥이었으며, 음식으로서는 메마르고 거무티티한 빵(coarse and monotonous - black or brown bread)을 먹었다³⁰⁾.

이와 대조적으로 중세 전기의 장원경제 체제하에서 영주의 생활은 호화스럽고 전쟁과 사냥, 향락과 도박을 일삼는 한가한 생활로 인해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므로, 이들은 자신들의 손실을 메우기 위하여 농민들을 착취하게 되었다. 이러한 생활은 속계의 영주뿐만 아니라, 영계(靈界)의 지도자인 성직자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반면에 소작농들은 그렇지 않아도 신분상의 부자유 속에 놓여 있었던 터에 더욱

참고 : 최문환외 공저, 경제사, (서울 : 박영사, 1980) pp. 96-97

29) 홍 치모, op.cit., p. 52

30) Edward McNail Burns, op.cit., p. 114

더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래도 영주의 가혹한 착취 속에서도 노동을 하며 잉여 생산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계기로 농민들의 구매력은 점차 증가하고 시장은 점차 확대되어 갔다.

따라서 자유 수공업의 계급이 발전하였으며, 상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업의 발달과 도시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농노들은 장원경제의 가혹한 착취, 부역, 농민들의 토지 몰수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도시로 도망하였으며, 도시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교환경제가 발전케 되자 점차적으로 농노해방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³¹⁾. 그러므로 그 유명한 “도시의 공기는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stadtluft macht frei)는 속담까지 나오게 되었다. 이러한 11세기의 상업의 확대는 화폐경제와 도시의 시장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었으며 화폐가 유통해 감에 따라서 농촌의 자급자족경제도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농산물이 시장으로 나가 매매되고 장원은 외부와 접촉하게 되고 점차로 폐쇄적인 구조는 깨뜨려지게 되었다.

뉴캐슬 어폰 틴(Newcastle-upon-Tyne)의 전형적인 12세기의 포고문을 보면 “농노가 도시로 이주하여 도시에 1년 1일을 도시민으로 머물러 있으며, 그 농노가 그의 영주와 사전에 일정한 기간만 도시에 머물러 있겠다는 계약이 없는 한 그 농노는 도시에 영원히 체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³²⁾.

화폐가 편리하고 더 유용함을 알게된 영주는 직영지까지 소작인에게 대여하여

31) 최 문환, 근대 사회 사상사, (서울 : 삼영사), p. 18.

32) John. h. Mundy, Medieval Urbanism, p.138.

“ ” ” , The Customs of Newcastle Upon Tyne in the Time of Henry I, (1168-1135년) 참조

수입증가를 피하게 되었다. 농촌의 대금노동자는 흑사병(Pest, 1348-1350)이후의 일반적인 인구감소로 더욱 구하기 어려워져서 14세기 후기에는 대금이 2배로 상승하였다. 영주 직영지 소멸과 함께 병행된 금납화(Commutation)즉, 영주가 지대를 현물(Payment in kind)보다 화폐로 받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다. 이와같이 하여 영주와 농민간의 계약관계는 토지의 대차관계(貸借關係)로 변하였다³³⁾

바꾸어 말하면 장원내에 있어서 농민의 노역이 화폐로 지불됨으로써 종래와같은 토지에의 예속도(隸屬度)가 희박해졌다. 농민은 돈을 주고 이사할 수 있는 자유를 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건적인 지배층은 농민의 생활조건을 개선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낡은 제도를 고집하여 전과같이 수탈하려고 하였다. 농민들 가운데서도 운이 나쁜 농민들은 땅을 잃고 임대노동자의 처지로 전락하였다. 간단히 말해서 낡은 장원제도의 붕괴는 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하였다³⁴⁾

이러한 전쟁이나 반란은 경제적 생활의 향상과 아울러, 부유하더라도 사회적 조직망이 해이할 때 - 즉 기존 사회의 조직망과 사회적 질서가 해이해지고 또 이를 제지하는 법규가 무의미하게 될 때 - 나타나는 것이다. 소로킨(Sorokin)의 표현에 따르자면, 사회적 반란 혹은 민란은 사회적, 문화적 관계의 조직망과 안정성이 파괴될 때 발생하는 것이다³⁵⁾.

이와 같은 장원경제(Manor Economy)의 붕괴는 이질적인 경제질서를 가져오게 되

33) 차 하순, 서양사 총론, (서울 : 탐구당) .p. 259.

34) 14세기의 사회적 불안정으로 인한 농민반란의 예를 보면 1358년 프랑스의 자크리(Jacquerie)亂, 1381년 영국 오트 테일러(Wat Tyler)의 난 등은 이러한 구제도의 붕괴에 따른 농민의 불안을 가르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농민봉기의 최대 절정기는 1419년 Hus파의 반란 (Bohemia), 1524-25년의 토마스 문쳐의 농민전쟁이다.

35) Bainton, R.H. op.cit., p. 145.

었는데 곧 도시경제이다. 장원적 질서를 이탈하고 도시에 들어온 다수 농민들은 도시 시민으로서 상업, 수공업에 종사하기 시작했고, 이들은 일정한 세금을 도시 영주들에게 지불함으로써 자유로이 상업에 종사할 수 있었으며, 도시 영주와는 하등의 신분상의 예속관계에 있지 않았다. 또 영주의 예속공인(工人)도 점차 영주에게 일정한 댓가를 지불하고 판매를 위한 자유로운 수공업자가 될 수 있었다.

이러한 공인이 자유수공업자로서 전화(轉化)된 것은 영주 자신에게도 유리하였다. 왜냐 하면 영주는 공인의 제작물 수납보다 화폐수납으로 말미암아 그 화폐로 자기가 원하는 물품을 자유로이 매입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도시가 발달함에 따라 영주 또는 소지주층도 토지소유에 기한 수납만으로는 점차 증대해가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가 없었으며, 또 도시를 지배하는 새로운 경제관심에 따라 그들 자신이 상인으로 변하는 자들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에는 교환이라는 특수한 경제관심이 충만하였으며 이것은 일정한 화폐납부를 매개로 일체의 신분 예속관계를 해체시켜 버렸다³⁶⁾.

이렇게 형성된 사회계급들은 자신들의 계급을 보존하고 그들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 조합을 조직하고 이에 결속하였으니 이것이 “상인 길드”(Guild of Merchant)이었다³⁷⁾. 자기 계급의 이익을 위해 결속된 이들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외부에 대해서는 상업행위를 순조롭게 진행시켜 왔고 그러기 위해서 도

36)조 기준, Op. cit., pp. 178-179.

37) "The basic economic institutions in the medieval cities were the guild. The main functions of the merchant guild were to maintain a monopoly of the local market for its own members and to preserve a stable, non-competitive economic system.", Edward McNall Burns. op. cit., p. 339 인용함.

시차치권을 비롯하여 여러 권리를 획득하였으며, 내부에 대해서는 각종 규약, 즉 영업시간, 영업종목, 가격 등에 대한 규약을 설정하고 또 상호간의 이익을 방해하는 경쟁을 배제하였다. 한걸음 더 나아가 상호협조와 관련한 때의 원조 등 사회 보험사업도 하고 있었다³⁸⁾.

이러한 상업길드(Merchant Guild)가 강화됨으로써 도시의 주민들이 이에 저항하게 되었다. 이 저항의 선두에 나타나게 된 자들은 다름이 아닌 도시에서 상인과 함께 발달한 수공업자들이었다. 도시 수공업자들은 동직자의 이해 관심에서 동직자끼리 일정한 장소에서 모였으므로 “동직자조합”(Zunft, Craft guild)을결성케 되었고 이들은 동직자조합 조직을 통해 상업길드의 특권에 저항하게 되었다³⁹⁾. 특히 처음부터 부호상(富豪商)이 도시권을 장악하고 있었으므로 이들은 처음부터 부업적인 수공업자들의 길드가입을 막아 버리고 말았다. 더군다나 독일에서는 이들 부호상들은 길드를 조직하지 않고 소수의 상인귀족만이 도시권을 장악하고 있었으므로, 수공업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매우 상반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하여 수공업자들은 상인길드와는 별개로 조합을 조직하여 상인의 도시권에 저항하였다. 라인강 연안의 제 도시 및 북부 독일의 한자(Hanza)도시에 있어서는 길드 투쟁이 역사상 유명한 일례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시의 길드 투쟁에서 상인의 세력이 우세한 듯 했으나, 수공업의 발흥과 그 결속은 점차 기세를 올려 14, 15세기 경에 이르러서는 수공업 조합이 상인계급보다 더 우세해져서 그들이 승리하게 되었다⁴⁰⁾.

38) Ibid., p. 184.

39) 조 기준, op.cit., p. 185.

그러나 이 준프트⁴¹⁾는 중세말기부터 점차로 붕괴과정을 밟게 되었으며 동시에 15, 16세기 농산물의 상품화에 있어서 영주 자신이 상품경제의 담당자가 됨으로써 화폐지대는 다시 노동지대로 복귀하고 말았다. 동독에 있어서는 14, 15세기 경까지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지대가 화폐지대로 보편화되지 못하고 생산물 지대가 오랫동안 지배했다. 이것은 동독에서 당시 교환경제가 일반적으로 농촌에까지 침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독에서는 지대경제의 성립기에 있어서 노동지대는 대규모적으로 화폐로 옮겨지지 못했고 경과적인 형태인 생산물지대가 비교적 오랫동안 지배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교환경제의 미성숙이라는 여건이 소영지 영주로 하여금 상품경제의 주도권을 쥐게 하였다⁴²⁾.

이러한 여건 하에서 독일은 전쟁, 기아, 질병, 전염병 등이 심하였으므로 농촌이 파괴되었고, 영주의 지대수입은 감소되었다. 그러나 독일은 원래부터 농민에 대한 영주의 권한이 강했으므로 영국과는 달리 직접 영주가 토지소유를 강화하고 경영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독일에서는 16세기 이래 소영지경제가 강화, 확대되었으나 반면에 농민의 부역 노동은 더욱 심화되었으니 이로 인하여 소위 독일 사회의 후진성에 의한 “농노제의 재판”(Gutsherr Schaft)⁴³⁾이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40) Ibid, pp. 187-188.

41) *Zunft*의 붕괴 요인은 준프트 내부에서 수공업자가 승격하여 다른 준프트에게 조제원료를 주어서 정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자가 나타났기 때문이며 준프트사이 안에서 이익을 침범함으로써 해서 다른 수공업자 준프트가 상인의 금력에 억눌리게 되었기 때문이며 원료가 고가이며 그 원료 수입에 거액의 자본이 필요함으로 외국 수공업자에 의존케 됨으로 붕괴되었다.

42) Ibid., p. 215.

43) 프랑스, 동독의 농민에 관한 유형적인 파악에 있어서는 혁명 전의 프랑스 농민에 관한 종합적 서술을 보여 주고 있는, J. Loutchisky, *L'état des classes agricoles en France à la veille de la Révolution* ; (1978) pp. 11-12. 참조할 것.

수입의 감소와 물가고에 시달리고 있는 영방제후들은 그들의 경제적 실력을 만회하기 위해서 토지영주(Grundherr)에게 경제적 압력을 가하자 그 여파는 농민들에게 미치게 되었다. 따라서 영주들은 농민들에게 새로운 연공(年貢, Aufgabe)과 부역(賦役, Frondienst)을 부과하였다. 게다가 교회의 대주교(제후)들은 로마 교황청의 지령을 받아 10분의 1세를 징수하였는데 한층 더 열을 올리고 누적되어 오던 부채를 갚는데 필요한 재정을 충당시키기 위해서 고안해 낸 것이 면죄부(Indulgences) 판매였다⁴⁴⁾.

이상과 같은 사회경제적 변화 과정 속에서 그동안 중세 기독교와 봉건제도의 악조건 속에서 억눌려 살았던 중세인들은 시대적 변화에 상응하여 농촌을 버리고 도시에 진출해서 현실에 대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깊이 인식하고, 현세에 보이는 생활 속에 파묻히고 싶은 충동을 느꼈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김성식 교수는 “이때부터 속물주의(Philistinism)의 전 단계인 세속주의(Secularism)가 일어나기 시작했다”⁴⁵⁾고 지적하였다.

루터는 이와 같은 소용들이 치던 상황 아래서 농부의 아들로 출생하였고, 광부의 아들로 성장하였다. 따라서 그는 어린 시절 주교에게 돈을 빼앗기고 영주에게 착취당하면서 부르던 동네 사람들의 ‘원한의 노래’ 소리를 못들을리 만무했을 것이다.

“우리들의 손으로 씨를 뿌리면

성직자들이 그것을 거두어 간다.”⁴⁶⁾

44) 홍 치모, op.cit., pp. 53-54

45) 김 성식, op.cit., pp. 38-39

대주교들의 이러한 착취에 대하여 마틴 루터는 1520년에 발표한 “독일의 기독교 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Adress to the Christian Nobility of the German Nation)에서 대중들의 생각을 너무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과연 왜 우리 독일 인들은 교황의 손에 우리의 재산을 착취하고 강탈해 가는 것을 보고도 언제까지나 참아야 한단 말인가? 만약 프랑스 국왕이 이러한 작태를 방지할 수 있다면 왜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바보, 일간이 꼴을 당해야만 한단 말인가?... 그러고도 우리는 왜 우리들의 영주들과 귀족들, 도시들과 그 재정, 나라들과 국민들이 더욱더 궁핍해지고 있나 의아해 하고있다. 우리는 차라리 아직 먹을 것이나마 남아 있다는 사실을 기적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⁴⁷⁾”

3. 교회의 상황

중세기 교회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게 된 원인은 멀리 4세기의 콘스탄틴 황제의 시대로 그 연원을 찾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A.D. 313년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계속적으로 로마제국으로부터 박해만 받게 되었다. 그러나 로마제국은 콘스탄틴이 다시 통일하면서 기독교를 제국내의 공인종교로 인정하였으며, 동시에 기독교회에 엄청난 특권과 호의를 베풀었다. 그러나 황제의 이러한 교회에 대한 호의와 도움은 상대적으로 교회가 그 자주성은 잃어 버리게 되는 계기가 되

46) 大塚 久族, 종교개혁 と 近代社會 p. 50. 홍 치모, op. cit., p. 54에서 재인용.

47) Lewis W. Spitz, The Reformation, 서영일 역,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1983) pp. 49-50.

었던 것이다. 그 후 교회는 황제나 국가의 간섭을 받게 되었고 일부 교회는 국가의 예속물로 전락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된 교회는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고 중생한 자들의 모임이 아니고 엽관배들이나 이권을 추구하는 자들의 집단으로 추락되어 버린 것이다.

물론 교회가 이러한 상태에 빠져있을 때나 야만족의 침략을 받았을 때 그레고리 1세(Gregory I)와 같은 유능한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보호하거나 개혁한 일도 있었으나 이러한 개혁은 계속적인 것이 못되었다⁴⁸⁾. 더우기 교회에 재산(주로 토지)이 축적됨에 따라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인들의 영적 지도보다 오히려 토지관리와 이에 관한 이권을 추구하게 되거나 세속권력 장악에 몰두하게 되었고, 주교는 때로는 세속적 주권자나 일반 군주로 전락되기도 하였다.

12-13세기에 이르러서는 교회내에 성례전제도에 기초를 둔 “교황신정제도”(The Papal Theocracy)가 확립되면서 교황이 하늘과 땅의 권세(교권과 속권)를 한 손에 잡고 절대 권력을 휘두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속의 권력과 돈의 맛을 알게 되었으므로⁴⁹⁾, 실은 교회의 큰 위기의 시기였으며, 점점 교회는 영력을 상실해가고 세속에 깊이 물들게 되었다. R.H Tawney 가 지적한 바와 같이, 법왕, 발로와, 함스부르크, 튜더 왕조도루터의 모국 남독(母國南獨)의 거상(巨商)에게 화폐력으로 속박된 인형(人形)에 불과하던 때였다. 길드의 직공은 상인의 재벌에 농락되어 임금 노동자로 전락하였으며, 농민은 상업자본의 침식, 봉건농노제의 잔존으로 고뇌하고 있었다⁵⁰⁾.

48) 송 길섭, 16세기 종교개혁 발전사. 「기상」1978년 10월호. p. 35.

49) Ibid., p. 35.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회는 점차 금력을 가진 자들의 수중에서 움직여지게 되었으며 교회도 세속주의에 물들기 시작하여 “교직매매”(Simony)와 “면죄부”(Indulgence) 판매⁵¹⁾라는 타락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당시 일반 봉건영주가 직면하였던 재정적 궁핍을 로마 교황청이나 대주교도 면하지 못하였다. 화폐경제의 발달에 따라 화폐의 지출이 현저하게 증대되고 그 위에 신대륙의 은이 가져온 가격상승은 이들의 재정상태를 더욱 절박하게 하였으며, 종래의 봉건적 수입은 점점 감소하여 갔다. 특히 화폐지출을 강요한 것은 전쟁비용으로서 이것이야 말로 중세말 교황의 성격을 짐작케 하는 것이며 교황청 재정의 화폐지출 부분이 되었다.

즉 이때의 교황은 하나의 세속 군주로 전락하여 자가세력 확대와 영토신장과 재물에 눈이 어두워 권모술수, 살인, 전쟁을 서슴치 않고 감행하였다.

특히 교황 알렉산더 6세(Alexander VI, 1492-1503)의 아들 시이저 바르기아(Saesar Borgia)는 그 아버지의 재산으로 영토확장과 세력증대를 위하여 배신, 음모, 독살을 자행하여 “죄악의 거장”이 되었다⁵²⁾. 그 뒤를 이은 율리우스 II세(Julius II, 1503-1513)도 유능한 전략가였다. 이 전쟁 비용과 더불어 교황청 지

50) 최 문환, 근세사회사상사, op.cit., p. 49.

51) 면죄부는 죄의 赦免이 아니며 지은 죄에 대하여 연옥에서 받을 벌의 일부 혹은 전부를 속면케 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속죄부는 2세기 이상이나 중세 교회의 위력을 떨쳤으며 교회의 구체절차의 불가분의 부분이었다. 이 면죄부는 도덕적 죄를 금전지불로 상을 대신할 수 있다는 즉 게르만 민족의 회개총칙(Penitential)에서 이론적으로 영향을 받던 십자군 전쟁중에 성전에 참여한 자에 한하여 참회의 고행을 면죄해주는 십자군 속유장(Kreuzelblaß)을 발행하였던 것이다.

52) L. Von Ranke, The History of the Pope. Vol. I (trans by Foster, London, 1847). P. 32.

출의 큰 몫을 차지한 것은 교황청 관리의 봉급이었다. 12세기 이래 교회정치는 중앙집권화가 되었다가 교황청의 관리의 수와 사용인의 수는 점점 증가되어 이들에 대한 봉급액수는 막대하였으며, 그 외에도 교회자체의 잦다한 지출이 증대되어 갔다⁵³⁾.

또한 성당건축과 전비조달 교황청 관리의 봉급 등으로 비용을 염출하기 위하여 교황청은 여러가지 무리한 방법을 쓰기 시작하였다. 즉, 교황청은 고리대금업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 결과적으로 금융업자, 대상인의 대두를 촉진시켰으며, 교직매매를 공공연히 자행하고 면죄부를 발행케 되었다.

교직매매의 대표적 예는 “초년수입세”(Annate)인데 그것은 새로 취임하는 대주교, 주교, 수도원장이 일년간 그 담당구역에서 거두어 들일 수입예상액을 지출해야 하는 것이다⁵⁴⁾. 그리고 대주교가 취임할 때 교황이 하사하는 법의(Pallium)는 원래 무상이었는데 교황청의 재정이 곤란해지자 거액의 법의대(法衣代)를 요구하였다.

또한 성직들을 친척들에게 수여하는 족벌주의(Nepotism)의 경향도 점차 짙어가기만 하였다. 그리하여 교황 레오 10세(Leo X, 1513-1521)하에서 돈주교 살 수 있는 성직의 수는 사상 최고에 육박했으며 그의 출신가문인 메디치가의 상재(商才)를 유감없이 발휘하여 돈받고 팔 수 있는 자리를 창안해 내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Radix Omnium Malorum Avaritia(돈을 사랑함은 일만악의 근원이니라)하는 구절의 라틴어 두문자(頭文字)를 따서 만든 로마, 즉 ROMA라는 풍자가 유행하였다.

53) 이 대섭, op.cit., pp. 44-45.

54) Lewis W. Spitz, op.cit., p. 46.

고위 교직자(성직자)들은 이같은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고 그 지위에 오르면 그 비용을 회복하기 위해 교구인을 착취하였고, 이와 같은 교직자들의 인격에서 고매성은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도덕적 타락과 부패는 극에 달하였다. 헤이스(C. J. H. Hayes)가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의 주교나 수도원장들은 음모 정치가와 억압적인 금전 수탈자, 낭비가요 음탕한 향락주의자”들 이었던 것이다⁵⁵⁾.

이노센트 8세(Inocent VIII)가 재위하던 중 로마를 방문한 아우구스부르크市의 서기 콘라드 퓨팅거(Conrad Peutinger)는 기독교전의 수도 로마의 참혹한 부패상을 1491년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나는 이곳에서 상하를 막론하고 돈으로 사지 못할 것이 없음을 깨달았다. 음모와 위선, 아침은 세상 인들이 흠모하는 바요, 종교는 탈선하였다. 수를 헤아릴 수 조차 없는 야비한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의는 잠자고 있었다. 폐허가 된 고대의 유적들을 볼 때마다 들어보지도 못한 위선과 허식으로 모든 포악과 악독을 행하는 자들에 의해 이 유명한 도시가 지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탄치 않을 수 없다. 이 악한 자들은 규제받는 대신 칭송을 누리고 있다. 내가 그들을 비난하자 그들은 다 숙명에 의해 예정된 일이라고 응답하였다.⁵⁶⁾”

또한 성직자들이 저술한 글들은 일반인들의 지적 욕망과 도덕적 행동에 대한 도

55) C. J. H. Hayes, A Political and Cultural History of Modern Europe
Vol. I. pp. 146-147.

56) Peutinger to Valentin Eber, August 5, 1491, in Konrad Peutingers
Briefwechsel, ed. Erid Konig. (Munich, 1'923) p. 9. / (L.W.
Spitz, op.cit.,에서 재인용.p.30).

움을 주기 보다는 해를 끼칠 정도였으며, 사생아를 가진 신부가 태연자약하게 미사를 드리고 수도사의 대부분은 일하지 않고 편안한 생활을 하는 것 이외의 다른 생각은 하지도 않았다.

“한번 인생을 즐겨보는 자는, 일년내내 단꿈을 꾸려는 자,

이 인생을 행락하며 보내려는 자는 수도사가 된다”

라는 속담까지 파생할 정도로 교회는 극도로 부패해 있었다⁵⁷⁾.

이상에서 언급한 교황청의 수탈과 부패는 국민국가의 대두로 왕권의 제제를 받았으나, 다른 나라에 비하여 낙후된 독일과 이탈리아만이 이 더럽고 무거운 짐에 눌러 신음하게 되었다. 특히 면죄부 판매는 루터뿐만 아니라, 인문주의자들과 제후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이미 십자군 시대에 생긴 면죄부는 이때에 심령적, 경제적, 도덕적 제방편에 많은 해를 주고 있었으며, 그 거래 방법도 저속한 상인의 그것보다 나을 것이 없었다.

1513년 교황 Leo X는 이 면죄부를 재발행하게 하고, 막데부르크와 마인쯔 대주교구에서의 판매총책에 브란덴부르크의 알버트 대주교(Archbishop Albert ; 1490-1545)를 임명하였다⁵⁸⁾. 그러나 그 당시 알버트는 연령이 미달되어 대주교에 임명될 수 없었기 때문에(당시 그는 겨우 23세였다) 교황 Leo X에게 필요한 돈을 지불함으로써 대주교에 임명될 수 있었다.

성 베드로성당을 짓기 위하여 돈이 필요했던 Leo X의 계산과 알버트의 욕망이

57) L. Von Ranke, Deutsche Geschte in Zeitalter der Reformation (pp. 124-125). (Koln, Phaidon Verlag).

58) L.W. Spitz, op.cit., p. 68.

서로 맞아 떨어짐으로써, 1513년 알버트는 막테부르크 대주교가 되었으며 Halbertadt 교구도 차지하였고 그 다음 해에는 영예로운 마인쯔대주교로 선출되었다. Earle E. Cairns에 의하면, 그는 당시 그의 나이로는 대주교가 될 수 없으며, 또한 일 교구 이상 담당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교구를 셋이나 차지하여 교회법을 위반하였다¹⁾.

교황은 이러한 극악한 다수 교구 겸임의 불법을 목인하는 댓가로 12,000 ducat를 요구하여 1만 ducat로 타협을 보았으며, 특별 면제비(Dispensation), 법의대(Pallium), 그외에 총비용을 합하여 알버트는 34,000 ducat²⁾를 소비하게 되었다³⁾.

이것은 거액의 돈이었는데, 교황은 알버트로 하여금 당시 아우구스부르크에 있는 고리대금업자인 퓨거로부터 차입하도록 제안하였다. 그리고 교황은 교서로 면죄부 판매하는 권한을 알버트에게 주면서 판매대금을 반분(半分)하기로 하였다. 1517년 알버트는 면죄부 판매에 대한 많은 경험과 능숙한 수단을 가진 도미니칸 수도사 테첼(Tetzel)을 면죄부 판매 책임자로 채용하였으며 테첼은 특수한 세울환산표를 만들어 가면서 아주 교활하게 면죄부를 판매하였다.

그가 만든 환산표는 다음과 같다.⁴⁾

(7) 왕, 대주교, 주교는 25 Gulden

1) Earle E. Cairns, *Christianity through the Century* (Michigan : Academie Book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1) p. 282.

2) one ducats = 약 23불.

3) Harold J. Grimm, *The Reformation Era 1500-1650*. (New-York : The Macmillan Company, 1963), pp. 106-108.

4) E. G. Schwiebert., *Luther and His Time*. (Saint louis Concordia Publishing, 1950).p. 311. cf. 1 Gulden = 13 불.

(ㄴ) 백작은 10 Gulden

(ㄷ) 상인은 3 - 6 Gulden

(ㄹ) 동업조합원은 1 Gulden

(ㄷ) 농민은 半 Gulden을 지불하도록 하였다.

P. Joachimsen은 테첼이 얼마나 계획적이고도 세밀하게 면죄부를 팔고 다녔는지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테첼은 자기가 가려고 하는 지방에 먼저 대리인을 보내어 지방 사정과 각 가정의 경제적 상태를 미리 파악하여 기록하게 하였고 그 후에 교황의 문장이 찍힌 붉은 십자가를 앞세워 수레에 높이 앉아 그 지방에 가서 그곳 교회에 들어가 붉은 십자가를 제단에 세우고 면죄부가 든 상자를 밑에 놓고는 신자들의 마음에 공포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웅변적으로 지옥과 연옥에서 받을 벌을 강조하고 이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과거에 지은 죄는 물론이고 장래에 범할 죄도 용서 받을 수 있다하며 연옥에 있는 영혼까지도 구원할 수 있다고 외쳤다.

“돈이 께작속에 들어가 짚랑 소리가 나자마자 영혼은 연옥에서 해방되어 빠져 나온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부모를 무서운 연옥의 불에서 건져 낼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통중에 있는 부모를 구원치 않고 배은망덕할 수 있는가?”⁵⁾

이와 같은 그의 설교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일반 대중들은 이 신성한 하늘 창고에서 내려온 은사를 사기 위하여 면죄부 판매 행렬의 주위에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것이다.

루터는 이와 같은 면죄부 판매가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하여 매우 염려하고 있었고, 거기다가 몇몇 교구민이 다른 지방에 가서 면죄부를 사가지

5) P. Joachimsen, Die Reformation als Epoche der Deutschen Geschichte. (München, Kaiser Verlag, 1951), P. 33

고와 혼계하는 그들의 행동을 보고 루터는 면죄부가 끼치는 외적 해악은 물론 진정한 참회의 존속을 위협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⁶⁾.

이 면죄부 행렬이 드디어 1517년 4월 삭소니선거국(Electoral Saxony) 경계 가까이 루터가 있는 비텐베르크에 까지 왔다. 비텐베르크에서는 제성도일(All Saints Day)의 저녁에 속죄표가 선포될 예정이었다.

루터는 여러 주교들에게 이 사태를 방지해 줄 것을 부탁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자 그는 면죄부에 대한 95개조의 반박문을 작성하여 이 사본을 브란덴부르크의 주교 제롬과 대주교 알버트에게 까지 발송하였다.

Melanchton의 기록에 의하면 루터는 제성도일날에 캐슬교회(Castle Church)의 북쪽문에 95개 조문을 붙이고 누구든지 이에 관하여 학문적 토론을 하고 싶으면 나오도록 도전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됨으로써 서양 중세의 교회의 세속성과 부패성에 억눌렸다 한 선각자의 의침이 시작된 것이다.

III. 독일 종교개혁의 사회운동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운동을 시작한 전후 독일사회에는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었으며 또한 사회운동의 성격을 지닌 사회개혁적 혁명이 다양하게 발생하였다. 사회개혁운동의 발생요인으로는 급변하는 당시 독일사회의 환경변화 때문으로서

6) 이 대섭, op.cit., pp. 49-52. Phi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VI (Michigan : W M.B.Edermans Publ. Com, 1984) pp. 756-767 참조.

특히 1438년 Wyclif와 Tabore 파⁷⁾의 영향을 현저하게 받아 쓰여진 “시기스문트 개혁”(Reformation Sigismund)⁸⁾이라는 문서가 독일지역에 회람하게 되므로 독일 농민들을 정신적으로 개화시키는 결과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보다 큰 요인은 루터가 종교개혁에서 밝힌 만인제사장설과 그리스도인의 자유성 등과 같은 교리는 억눌렀던 독일 농민들과 함께 융합함으로써 폭넓은 반응을 불러 일으켰던 것이다.

존 뵘(John Bohm)은 이르기를, 16세기 초기 당시의 농민들의 토지는 매우 가물고 비참했으며, 농민들을 노예와도 같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당시 독일의 사회적 상황을 기술한 이탈리아인 세베스티안 프랑크, 세베스티안 문스터, 판타레온 같은 사람들도 뵘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세베스티안 프랑크(Sebastian Frank, 1534)는 독일 농민들 모두가 성직자들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간에 그들에 대해 조소를 금치 못했다는 사실을 연구하여 발표했으며, 판타레온(H. Pantaleone, 1657)은 독일 사회에 많은 숙련공, 장인, 그리고 학생들이 멀리받는 농촌 경제출신이라는 사실을 연구한 바 있었다고 린세이(Lindsay)는 말한다⁹⁾.

대체로 당시 농민들이 억압을 당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므로 한 두마디로 일축할 수 없지만 일반 사가들의 견해를 고찰해 볼 때 그것은 연구들에 의해 조작된 새로운 법제(Jurispreudence)의 사용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¹⁰⁾. 이러

7) Tabore는 오늘날의 모스카우(Moskau)처럼 그 당시의 모든 유럽의 이단적, 사회적, 공산주의적 운동의 중심지였다. 타보르 파는 예루살렘의 원시 공동체처럼 초대 기독교적 영감속에서 살았다.

8) 장 일조, 사회운동 이념사 (서울: 전망사, 1979) pp. 126-127. 이 문서는 독일 사람들의 누적된 불만과 요구가 함축적으로 표현되어있다. 농노제도의 배제, 귀족과 교회를 통해 빼앗겨졌던 촌락 공동체에 속한 숲과 하천의 회수, 착취하는 商社와 同業組合의 철폐등이 기록되어 있다.

9) T.M. Lindsay, A History of Reformation Vol. II. (Charles Scribner's sons, 1926) p. 107.

한 상황속에서 농민들은 부당한 착취와 억압에 대한 꾸준한 저항을 하였다. 예를 들면, 캠프텐의 아보트와 그 지방 농민들 사이에 일어난 70년간의 투쟁이 있었다.

진술한 바와 같이, 15세기 이래 급변한 경제적 변화로 말미암아 생활이 풍부해지고 귀족들의 사치스런 생활로 인해 생활이 궁핍해지자 이 새로운 법제의 출현은 가난해진 영주들에게는 권력을 이용할 수 있는 절호의 도구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로 농민들의 생활은 점차 어렵게 되었고 브란덴부르크의 여러 지역에서는 농민이 아사상태에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아우구스부르크와 슈트라스부르크 같은 도시에서는 곡물이 없어 잡지 책에 그려진 곡물 그림을 보고 그것을 구입할 정도였다. 이러한 농민들의 생활의 궁핍, 기아, 억압등은 그들이 반란을 일으킬 당연한 요인이 되었다.

이처럼 15세기 말 16세기 초의 독일의 사회운동은 권력자에 저항한 운동, 즉 상류계층에 대항한 하류계층의 반발이요 실제하는 법제에 대항하는 반발이며, 사제들의 비종교적 요소보다 사회적 요소에 대한 불만으로 일어난 반발운동이었다.

이러한 계 운동을 살펴본다면 1476년 농민들이 억압을 당하고 있을 때에 독일사회에서는 평등의 시대가 도래하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땅위에 이룩된다는 환상을 지닌 종교적 열광주의 운동인 한스 뷔(Hans Bohm)을 중심으로 한 종교사회운동이 1476년 니클라스하우젠(Niklahausen)에서 일어났다¹¹⁾. 그 다음으로는 1493년 엘사스(Elsass)에서 분트슈(Bundschn)운동이 일어났다. 분트슈는 끈기있는 농민들의 단화를 가르키는 것으로 이 운동은 농민운동이었지만 도시인들도 가담한 운동이었다¹²⁾. 이러한 사회운동은 종교개혁을 기회로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10) Ibid, p. 107.

11) M. M. Postan(ed), Cambridge Economic History of Europe Vol. I. (Cambridge : The University Press, 1966) p. 737.

1521년 보름스 의회에서 황제와 교황 간의 정치적 문제에 의한 협의로 루터는 파문당하여 바르트부르크(Wartburg)로 피신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곳에 은거기간 중 신교운동은 새로이 일어나 '기사의 난'(1522, 루터의 열렬한 후원과 후텐 및 시킨켄의 주도)과 신구교파 중에도 가장 과격한 재세례파 운동과 농민전쟁에 의해서 독일은 신교운동이 확대되었다. 기사의 난은 약화된 기사의 권위회복을 위해 신교운동에 편승하여 그 지원을 버리고 제후에 대항한 것이고 또한 그들의 자유획득을 목표로 일어난 것이나 제후들의 압력 때문에 성공은 못하고 멸하였을 뿐이었다.

이와 같이 개혁운동의 주체적 이념과 지도력이 미약할 경우 외적 상황의 지배와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과격파를 대표로하는 카알 슈타트(Carlstadt, 1480-1541) 13)는 반 카톨릭주의에 철저한 나머지 교회의 성상파괴운동을 개시하였고, 한 걸음 나아가서는 쾰비카우(Zwickau)市에서 망명하여 돌아온 토마스 뮌쩌 (Thomas Müntzer)계통의 신비주의자들과 제휴하여 일약 사회혁명적 성격마저 띄게 되었다. 그들은 유아세례와 성서의 절대적 권위를 부정하고 오직 영과 내적 계시만을 강조하였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영의 계시를 받은 가난한 자들만이 지상에서 신국을 건설할 수 있다고 신봉하던 자들이었다. 루터는 서신을 통해 이 사실을 듣고 선 제후의 제지를 뿌리치고 1522년 3월 돌연히 비텐베르크시에 나타나 설득과 설교를 통해 소란을 진압시켰다. 루터는 순수한 종교개혁운동이 일부의 신비주의자들과 사회적 계급투쟁의 이용물로 악용되려는 것을 감지하고 극렬히 반대했던 것이다 14).

12) Ibid, pp. 103 ff

13) Gerge. h. Williams, Radical REformation (Philadelphia : Westminster Press, 1952) pp. 39-44.

이 운동은 1525년 봄에는 남부독일에서 중부독일로 확대되어 역사상 보기 드문 대규모의 농민전쟁(Bauernkrieg)으로 발전하였던 것이다. 이 운동의 배후에는 루터의 만인제사직론과 기독교자의 자유를 주장함으로써 농민들을 고무시켰으며(농민들이 루터사상을 곡해했음), 이러한 이론으로 토마스 뮌저는 농민들을 선동하는데 성공하였다¹⁵⁾.

한편 1524년 가을부터 독일 각지에서 술렁거리던 농민들은 그들의 공통적인 의견을 모아서 「12개조」¹⁶⁾를 발표하였다. 루터는 교회 영주 및 세속영주들을 비롯하여 농민들에게 보내는 「평화에의 권고」¹⁷⁾를 공포했으나, 뮌저는 역설하기를 “모든 것은 공유적이다.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그 때의 사상과 필요에 따라서 분배되어야 한다. 이것을 실시하고 싶어하지 않은 제후들은 그들의 목이 잘리거나 매달리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위협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농민폭력이 작센 근처에 까지 파급되자 루터는 처음에 자신이 농민의 아들이었고 농민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 때도 그들을 동정하던 입장에서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영주편에 가담하여 완전한 반농민적이 되어 버렸다.

즉, “살인, 강도를 일삼는 농민의 도당에 대하여”(Against the Robbing and Murdering Herdes of Peasants, 1525)란 글을 발표하면서 영주들로 하여금 농민들

14) 루터는 농민들의 불만과 토마스 뮌저의 선동적인 천년왕국 사상(Chiliasm)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다. Wilhelm Zimmerman, Geschichte des grossen Bauern Kriegs, Bde III. 참조. 홍치모, 종교개혁사. p.69 재 인용.

15) 홍치모, op.cit., pp. 72-73.

16) 12개조에 대해서는 홍치모 교수가 저술한 “종교개혁사”, 성광문화사 p. 73 참조할 것.

17) Admenition to Peace 1524, J.M Porter, Luther : Selected Political Writings, pp.71-84.

의 폭동을 진압시키는데 일제히 공격할 것을 촉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공적이던 사적이던 이 폭도들을 치고 질식시키며 찢러 죽여서 이들보다 더 독하고 해로우며 악마적인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오.”¹⁸⁾라고 말한 루터의 태도의 변화로 말미암아 결국 농민들은 패배케 되었고 이러한 과격한 루터의 주장에 농민들은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하였으며 그를 존경하고 따르던 많은 사람들도 그를 저버리게 되어 루터파는 피할 수 없는 분열에 빠지고 말았다.

많은 농민들은 루터를 거짓 선지자라고 비난하면서 당시 카톨릭에로 귀의하게 되었고 일부 영주들은 루터가 농민 폭동을 발생케한 장본인이라고 공격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중립적인 영주들은 개혁을 배척하였고 남부 독일은 카톨릭 세력이 더욱 강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521년 보름스 회의에서 전 독일국민의 대변자와 영웅으로 섰던 루터는 농민전쟁 이후 한낱 한 종파의 지도자로만 머물게 되었으며 이후 루터주의는 주로 중류계급과 부유층에서 활기를 띠고 빈민층은 다시 재세례파로 넘어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¹⁹⁾.

그러나 농민전쟁 이후 영주의 세력은 더욱 강하여졌고 농민들은 이미 얻었던 권리마저 박탈당하고 또 다시 봉건적인 압제에 신음케 되었으며 그 이후로 루터파 교회는 영주의 보호와 지도로 발전되어 루터는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교회조직을 위임치 않을 수 없었다²⁰⁾.

18) J.M. Porter, op.cit., pp. 85-88.

19) 이 대섭, op. cit, p. 104.

20) Erst. Troeltsch, Geschichte der Christlich Religion, 2 nd(ed).
(Berlin B. G. Tenber, 1909).p. 488.

루터의 직업적 소명감(Beruf)이 칼빈주의를 신봉하는 제국에서는 자본주의 정신의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리만큼 그의 사상이 보급되었지만 관료적 국가주의의 신분제적 사회질서 속에서는 한갓 무리한 「인종의 윤리」(忍從의 倫理)로 머물고 말았다.

영국의 청교도혁명 운동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²¹⁾.

농민전쟁에서 농민들의 패배는 독일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상실케 된 역사적 계기가 되었고, 1848년 3월 혁명에 실패한 시민혁명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채 그 비극의 막을 내리고 말았다. 독일의 후진성과 문화발전이 지연된 역사적 원인을 1525년 농민전쟁의 실패에 있다고 보는 것도 결코 무리가 아니다.²²⁾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종교개혁의 여파로 인해 더욱 더 팽배해진 사회운동은 뉘른베르크를 중심으로 한 농민들의 개혁운동으로 발전되었으며, 이 운동은 단순한 종교적인 교회개혁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개혁에 까지 폭넓게 전개되어졌던 운동이었다.

이러한 관점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해왔던 종교개혁을 루터파 중심으로 일어난 종교적인 개혁운동에만 국한시키는 정도였는데 반하여 종교개혁의 새로운 광범위한 맥락에서 고찰해 볼 필요성을 절감케 한다.

21) 홍치모, op. cit, P.75.

22) 홍치모, op.cit, P.75. 참조.

III. 종교개혁 유산이 독일사회변혁에 미친 영향

1. 30년 전쟁의 직접적 계기

16세기의 독일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의 계기는 물론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르네상스의 영향으로 인한 인간성 회복과 자아발견에도 있겠지만, 루터를 통한 종교개혁의 직접적인 결과였다. 종교개혁은 정치면에서 봉건적 신분제 국가가 해체되는 가운데 왕권과 국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통일적 국민국가의 형성으로 로마교회의 영향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으로 나타났다²³⁾.

7명의 선제후(Kurfürsten)에 의한 교회의 대분열(Great Schism, 1378-1417)을 거치면서 로마 카톨릭과 남부 독일의 이권에 대한 문제를 놓고 다투며 또한 황제의 세력을 견제키 위한 제후들의 로마 카톨릭 교회와의 결속은 독일 전역을 황제와 교황 및 제후들 사이의 권익투쟁의 활동무대가 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후에 30년 전쟁의 무대가 되는 불행한 사태를 초래하였다.

루터파 종교개혁 운동의 발전계기는 제후들의 지지 이외에도 황제 카알 V세가 끊임없이 대외전쟁에 분방하였다는 요인도 있다. 카알 5세는 프랑스 및 1535년 동맹을 맺은 Ottoman Turks와 싸우기 위해 독일 제후들의 지원이 필요하였다. 1526년 스페이어르 국회(Speyer)는 제후와 제국도시에 종교문제의 해결을 위임하여 루터파의 신앙을 허가하였는데 외전상황이 황제에 유리하게 되자, 그는 1529년

23) 허긴, 독일 영방교회의 형성과정,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1962)

다시 스페이어(Speyer)²⁴⁾ 국회를 열어 앞의 결과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루터를 국법의 보호로부터 재금지령을 선언하였다. 이에 작센 선제후 존을 비롯하여 루터파는 자위책으로 슈탈칼텐동맹(Leage of Schmalkalden)을 체결함으로써(1530년), 신, 구대립은 격화되고 독일은 대혼란에 빠져들었다.

제 2차 스페이어르 국회 다음 해에 아우구스부르크에서 국회가 소집되어 신, 구 양교의 조정이 시도되어 루터파의 동료인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인 멜란히톤이 기초한 타협적인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1530)이 제출되었다. 타협이 결렬되어 신교 제후는 익년(1530년) 슈말칼텐에서 동맹을 조직하고 프랑스에 원조를 구하여 황제 카알 5세에 대항할 자세를 취함으로써 카알 5세는 對 Turk, 프랑스戰을 위해 슈말칼텐 동맹과 화해했으나, 1544년 크레피 화약(crepy)에서 프랑스가 굴복한 후 1546년 결국 양자의 관계는 결렬되어 결국 슈말칼텐 전쟁(1546-1547)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전쟁에서 황제가 승리하였으나, 곧 프랑스왕 앙리 2세(1547-1559)는 황제의 우위를 바라지 않는 교황 및 독일 신교제후와 결탁하여 1552년 독일에 침입하여 투울市 등지를 점령하였다. 그리하여 황제는 동년 파쇼우 조약(Passau)을 체결하여 신교 제후들에게 신교의 자유를 허락하고 곧 사망함으로써 뒷처리를 그의 동생 페르디난드(1619-1637)에게 일임하고 그의 명에 의하여 1555년 “아우구스부르크 종교회의”의 성립을 보게 되었다.

이 아우구스부르크 종교회의에 의해 독일의 제후와 자유도시가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영방내의 인민은 군주의 신앙에 강제되어 개인의 신앙은 불허되어 “지배자의 종교가 그 지역을 지배한다”(Cuius regio, eius religio)라는 원칙이

24) 1529년 열렸던 Speyer 국회에서 황제 Karl V세의 지시에 항의하르로서 프로테스탄트라는 명칭이 유래 되었으며, 이 의미는 후에 非 Catholic Christ 교인들을 의미하게 되었다.

일방적으로 행해지게 되었다²⁵⁾.

이리하여 독일에서의 오랜 종교전쟁은 종식되고 약 반세기 간의 평화가 보증되기에 이르렀다. 이 회의에 의해 일견 종교적 관용주의가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신교는 구교와 대등한 의미에 있어서 공인되었으며 독일에 있어서 종교적 통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양파의 대립 그 자체가 이 회의에 의해서 해소된 것도 아니었다. 또한 아우구스부르크 종교회의에서 공인된 것은 루터파 뿐이므로 칼빈파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는 후일 신교 각파의 내분에 하나의 원인을 제공한 회의였던 것이다²⁶⁾.

또한 신앙의 자유는 제후들에게만 주어졌을 뿐 일반 개인에게는 주어지지 않고 영내에 있어서의 민중은 그 지배자가 결정한 종교에 따르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루터는 이때 생존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운동의 지도자였던 그가 농민전쟁에 대해서 취한 태도가 보여주는 바와같이 개혁은 일반민중에 의해 수행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후들에 의해서 이루어 진다는 신념을 가졌고 제후 또한 신교를 지지한 것은 그들의 종교적 신앙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정치적 타산에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여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아우구스부르크 평화회의의 결과, 독일은 제국통일의 길이 사실상 막혀 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이로 인하여 독일은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 때까지 서구 사회에서 그 주도권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대 국민국가 형성이 지연되었다. 이 평화회의가 개최되기 전 종교개혁의 주동자 마틴 루터는 이미 타계한 몸이었고 로마 교황이나 카알 5세도 직접적으로 이 회의에 관여하거나 하등의 영

25) Wallace K. Ferguson & Geoffery Bruun, op, cit., p. 396.

26) Ibid., p. 443.

향을 주지도 못했다.

당시 로마 교황은 반 종교개혁(Counter - Reformation)의 상징적 표시로써 트리엔트 종교회의(1545-1563)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다²⁷⁾. 또한 종교회의의 그 자체 중에는 다음에 오는 30년 전쟁이라는 비극적 해결을 낳는 화근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다.

그후 루터파 교회는 군주에 속하게 되어 지방군주 교회로서 로마교회와는 독립의 길을 걷게 되었고 국가가 교회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국가에 속한다는 전혀 새로운 교회형태가 확립되기에 이르렀다.

종교개혁으로 인하여 독일에서는 중세의 봉건주의나 전체주의는 약화되어 갔으며 교황의 절대권은 치명상을 입게 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제국의 왕권이 강화되었던 것이다. 물론 종교개혁의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았다.

종교개혁의 여파로 인하여 생긴 아우구스부르크 종교회의의 결과 공인된 것은 루터파 뿐으로 칼빈파는 포함되지 않음으로 해서 후일 신교간의 내분에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기에 이르렀다고 평가된다. 또한 아우구스부르크 종교회의로 말미암아 이미 로마교황의 권위는 약화됨과 동시에 각 영방에서의 제후중심으로만 신앙이 인정되자, 각 영방이 더욱 분리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민들은 통합적인 새로운 질서가 부여되기를 바랐으며, 개개인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신흥상공업 발전을 보증하는 국민적 통일국가가 형성되기에는 강력한 중앙집권국가의 출현만이 해결책이었다. 여기에 시대의 각광을 등에 업고 절대주의 군주가 새로운 역사의 무대에 출현하게 하는 배경을 마련해 준 면도 부정할 수 없다. 나는 곧 국가이다라고 말하며 왕권신수설을 주장하는 결과를 초래케 되었던 것이다.

27) 흥 치모, op.cit., p. 80.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이 만인제사장이라는 성경의 진리를 주장하여 빼앗겼던 신자 개개인의 의무와 권리를 되찾아 준 결과 각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국민국가를 형성하고 독특한 국민성을 발휘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의미에서 종교개혁은 근대 시민국가 형성에 지대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시민의식이 싹틈으로 말미암아 현대 민주주의가 발달하게 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던 것이다. 트라이츠크(Treitschke)는 종교개혁은 선한 독일인의 양심으로부터 발생하였고 교회 개혁가는 보다 자유로운 길위에 서는 전 독일국가의 개혁자들이었다고 주장하였으며²⁸⁾, 또한 쉐(K. Sell)은 말하길, "Protestantism은 종교로서 사멸하였거나 이제 서서히 사멸되어 가고있다. 그것은 하나의 분위기로서 국가적이고 정치적인 제의로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동력으로서 독일 국민에 에토스(Ethos)와 파토스(Paathos)로 존재한다고 설파함으로써 종교개혁이 독일정치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시사해 주고 있다.²⁹⁾

2. 경제적 영향

종교개혁은 종교, 정치, 문화뿐만 아니라 경제의 변화 등 광범위한 문제들이 얽혀서 된 복잡한 운동으로 이해되어 지는데 상업의 부활과 도시의 발생과 화폐경제의 대두로 말미암아 중세의 경제 체제인 장원을 중심으로한 봉건체제는 붕괴의 길을 걷게 되었다. 장원경제는 도시교환 경제에 입각한 새로운 자본가의 생성 및 상인 길드와 쥘프트의 생성으로 자본주의의 경제체제가 형성되어 갔다³⁰⁾.

28) P. Smith, The Age of the Reformation. (New York: Holf, 1936) p. 254.

29) Ibid, p. 254.

30) "Guild"란 말은 통설에 의하면 본래는 공동기금의 출연 또는 공동주연을 의미

일부 학자들은 종교개혁 그 중에서도 특히 칼빈파의 개혁은 자본주의의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³¹⁾. 특히 막스 베버는 칼빈주의 이론적인 영향이 자본주의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논지를 폈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주장하기를, 자본주의는 종교개혁보다도 훨씬 이전에 시작된 것이므로 근대 자본주의 발전을 야기하는데는 다른 요인들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도 한다³²⁾. 그러나 종교개혁의 여파와 이로인한 농민들의 의식성장에 의한 농민들의 반란은 독일 경제에 있어서 막대한 타격과 영향을 주었다.

또한 영주와 성직자로부터의 경제적 부담은 종교개혁을 통하여 농민들은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다. 농노 해방문제의 대두는 루터파의 만인제사장 사상과 이신득의 사상에 의한 사상적 기초에 영주 및 귀족의 착취에 의한 직접적 요인에 의하여 농민전쟁으로 분출하게 되었다.

그리고 길드의 형성으로 도시의 새로운 자본주의가 생겼으며 이러한 자본주의가 들은 막대한 정치적 실력을 행사하였다. 또한 빈부의 차이는 더욱 심화되어 상업주의에 대한 부호권의 도시권 장악은 후에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 종교개혁과 카톨릭의 반 종교개혁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미쳤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농노의 해방을 요구하며 일어났던 농민들은 카톨릭의 더욱 심한 억압에 놓였으며, 루터는 농민들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여 독일의 농민들의

하였는데 그러한 공동행위를 하는 결의 단체를 길드라고 불리우게 되었다. 최문환 외 공저, op.cit., p.129.

31) 이들 학자들 중에는 Max Weber, Ernst Troeltsch, R.H. Tawney 등을 들 수 있다. 그중 트렐치와 토니는 막스 웨버의 기본적인 전제들을 받아들이면서 많은 수정을 가했다. W. Stanford Reid, John Calvin : The Father of Capitalism ? (Themelois, 1983.1) p. 20.

32) 이들 학자중 대표적인 학자는 독일의 F.Rachfall을 들 수 있다.

Robert W. Green, Protestant and Capitalism(Boston, D.C.Heath and Company, 1953). p. 8.

경제형태는 실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다. 그러나 개혁파측에 있어서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조세에 대한 거부로 경제적인 면에 한편으로는 이익을 초래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농민의 경제상황은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루터의 종교개혁 당시 성직매매의 경제적인 영향을 과시했던 푸거 일가 못지 않은 자본가들이 유익한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계획된 원정에 자금을 제공한다는 것은 가치있는 일로 생각하여 막대한 투자를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일들은 개인 주의적으로 되기도 하고 또는 경쟁적으로 되어 산업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상업 및 금융의 광대한 팽창에 의해서 휩쓸어 감으로써, 또한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규모로 투자 이득의 기회를 제공하여 새로운 경제문명은 불가피하게 정열적인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우방과 적의 양자는 그것을 사회적 변화와 동일시한 이상 불가피한 종교적 논쟁을 감행하였다³³⁾. 사회혁명이 반세기 동안이나 발효하고 있던 독일에 있어서는 드디어 완전한 경제적인 문명이 도래한 것처럼 보였다³⁴⁾. 보댕(Bodin)이 1569년에 그 유명한 소책자를 출판하기까지 같은 시대 사람들을 좌절시켜왔던 수수께끼인 불가양동이라는 것은 독점자들에게 대한 분노의 합성을 불러 일으켰던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루터는 착취자에 반대하는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급진적인 경제의 형태는 거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칼빈은 루터 공동체의 사유재산 폐지와 재산의 공유에 대한 주장에 대해 고심하면서 집사에 의한 사회보장제도를 제

33) R.H. Tawney. Religion and the Rise of Capitalism, Mentor Books, 1953

(이 경식 역, 전망사,) p. 97.

34) Bodin, La Responsnse de Jean Bodin aux Paradoxes in Malestroit Touchant L'enchérissement de toutes choses et le moyen d'y remédier (R.H. Tawney. p. 98. 재 인용)

시하였다. 그는 한편 루터 공동체를 비판하면서 사유재산을 옹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유한 자의 횡포를 비난하고 있었던 것이다³⁵⁾.

트렐취(Ernst Troeltsch)가 칼빈주의는 기독교 사회주의의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움직였다고 말함³⁶⁾과 그리고 워커(G. S. M. Walker)가 칼빈은 사회복지에 대한 그의 관심에 의해 기독교 사회주의자들의 선구자였다고 말함³⁷⁾을 통해서 볼 때, 종교개혁자들의 기독교 사회주의 경제관에 대한 관계의 일면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이에 대한 비엘레(Andre Bieler)의 표현처럼 종교개혁자 중 루터가 농업을 증진시키고 상업을 감소시키는 것이 훨씬 더 경건한 일이라고 말함³⁸⁾으로써 농업을 강조하고 상업을 경시했다는 것과는 달리, 칼빈은 상공업을 천부적인 직업으로 보았으며 산업자금의 증식성을 인정하면서 “농지를 빌려주고 지대를 받는 것이 합리적이고 돈을 빌려주고 그 열매를 받는 것이 불법적이라는 말인가? ³⁹⁾”하고 반문하면서 사업자금에 대한 적절한 이자를 인정함으로써 자본주의의 성장의 배경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독일 사회에서는 상업과 금융이 서서히 효과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루터는 과거

35) 칼빈의 경제관은 고린도후서 8장 14절을 강해하면서 “이와같이 주님은... 우리가, 기금이 허락하는 한 곤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서 풍부한 사람도 없고, 결핍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에게 명함”이라고 함.

36) Ernst Troeltsch, The Social Teaching of the Christian Churches, trans, Olive Wyon(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31.Vol. II). p. 727

37) G.S.M. Walker, Calvin and the Church,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Vol. XVI, (1963)p. 388.

38) Martin Luther, Three Treaties (Philadelphia : Fortress Press, 1978) p. 108.

39) W. Fred Graham, The Constructive Revolution . John Calvin and His Social-economic Impact (Richmond, virginia : Tohn Knox Press, 1971) p. 92에서 재 인용.

에 대한 동경으로 인류의 자연적 대표자라 불리우는 중산층을 받아들이지 않고 국제무역, 은행업, 신용, 자본주의 산업 등은 루터에게서 거부되는 가운데 독일 사회에서의 도시자본가 및 중소 수공업자에 의해서 발전되는 단계에 이르는 것이었다. 40)

이와 같이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종교개혁의 영향은 실로 대단하였다. 애석하게도 루터는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사회발전은 거의 의식치 못했던 반면에, 칼빈은 장원중심의 농업사회에서 도시중심의 산업사회로 이행하던 과도기에 나타나서 상공업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산업사회에로의 이행을 촉진시켰으며, 아울러 산업사회에서 초래되는 부의 편재현상을 직시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부의 현상을 직시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산업사회의 새로운 예언자적 소임을 감당한 것이다. 이러한 종교개혁으로 도시사회는 더욱 자본주의화 되어가고 있었으며 종교개혁의 반작용으로 농촌의 농민들에 대해서는 카톨릭측과 개신교측 모두 압력을 가했던 것이다.

물론 최근에는 종교개혁의 경제적 해석으로 의견이 분분하지만 경제학자 쾰바르트(Sombart) 등에 의해 추구된 자본주의 발달에 자본주의 정신을 웨버(Weber)는 보다 근원적으로 추구하고 그 기원을 프로테스탄티즘에서 찾았으며, 이 이론은 정립화 되어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다⁴¹⁾.

3. 기타 제 영향

40) R. H. Tawney, op.cit., p.111.

41) R.H. Bainton, Interpretation of REformation in Reformation edited by Lewis W. Spize (P.C. Heath and Company, 1972) pp. 1-10 .참조.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일어난 농민전쟁을 치루고 난 카톨릭은 강경책을 취하게 되었다. 일반 문화사적 맥락에서 평가해 볼 때, 루터와 그의 추종자들은 그들이 바꿨던 독일의 기독교 통합을 달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이거나 유럽에 있어서의 기독교의 단합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비록 이들의 종교개혁 운동은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 볼 때 파괴적 급진주의 운동이었으나, 1524-1525년의 대 농민전쟁에 대한 루터의 극렬히 비난은 때로는 비정하게 그런 경향을 배격하기도 하였다. 이 운동은 스위스로부터 파괴되어 온 더 엄격한 칼빈주의적 교리와 기존 사회질서의 부인을 그 골자로 하는 윈스터의 재세례파(Anabaptist)의 무정부주의적 공동체운동 등으로 또 하나의 분파형태를 이루었으며, 격동을 겪고난 비텐베르크에서는 새로운 종파의 침투가 방심을 허용하지 않는 정세속에서 루터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교회의 재건과 조직으로 그의 종교적인 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즉 독일영방 국가교회의 시작됨의 시초가 되는 것이다. 이제 루터의 활동은 로마교회와 분리된 후 내적으로는 무질서한 가운데 정견이 없는 교회의 예배의식을 제정하는 일과 외적으로는 영방군주의 보호 아래 교회를 조직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형성된 루터주의가 「영방교회제」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종교개혁이 끼친 문화교육적 영향으로써, 독일어를 사용하는 세계에서나 혹은 독일어를 쓰고 읽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루터가 미친 정신적 유산은 매우 대단한 것이었다. 루터를 현대 독일 성경의 원조라고 하는 것은 과장일지 모르나 고지(高地)독일어(표준독일어)의 성경 용어는 루터를 제외하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루터의 번역성정은 독일뿐만 아니라 독일이 문화권에 크나큰 영향력을 끼쳤으며, 이것은 독일어를 보존하는데 큰 힘이 되었고 루터의 독일어가 독일민족을 하나로 되게 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또한 “글 가르치는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독일 사회의 교육적 영향을 끼쳤으며, 1523년 루터는 학교건설을 계속 촉구했으며, 1527년 여자들을 위해 학교를 건설할 것을 교회와 정부에 호소함으로써 16세기말 종교개혁 결과 독일의 삭소니, 헷세, 부르텐버그 공립학교가 세워지게 되었다.

또한 종교개혁은 역사학 발전에 공헌을 하였다. 중세 로마교회의 역사관은 역사를 사실 그대로 보려고 하기 보다는 역사취급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역사의 목표로 생각하여 모든 사건을 로마 교회의 규정, 법규, 구미에 맞도록 개조해서 서술하는 관점이었으나, 역사 가운데 어떤 도덕적인 목표가 있다고 본 종교개혁자들의 역사관은 후세의 서방역사가 특히 Von Ranke, F. Baur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V. 결 론

이제까지 논한 내용을 정리하고 간단한 평가를 내림으로서 본 논문을 맺고자 한다.

종교개혁 이전의 당시 독일은 정치적으로 봉건제후들의 황제권 제위에 대한 찬

탈의 연속이었다. 이 결과 독일제국 내에 300개 이상을 헤아리는 영방국가가 탄생케 되었으며, 제후들은 정치적, 경제적 기반을 다듬고 권세욕, 명예욕을 충족시키려는 야망을 품고 맹렬한 투쟁을 전개하는 상황이었다. 당시 카알 5세는 프랑스왕 프랑스와 1세 침입을 막기 위한 전쟁에 국력을 소진했으며, 오스만 터어키의 위협으로 독일 사회는 불안과 혼돈의 연속이었다.

경제적으로는 중세의 장원제도(monarial system)가 몰락하고 상공업 중심의 도시사회로의 변화 과도기였으며, 봉건사회에서 근대 시민사회로의 변천 과정이었다. 영주는 장원 내에서 사법권과 행정권을 동시에 장악하고 있었으므로 농민은 '빨없는 소'라고 부를 정도였다. 이러한 농민과 영주와의 예측관계는 길드제도(Guild System)가 강화됨과 동시에 자유수공업 발전과 상업의 발달로 인한 도시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금이가기 시작했다. 또한 이 시기에 독일에서는 기아, 전쟁, 질병 특히 전염병인 pest로 농민의 토지 이탈 현상이 심하여 농촌이 피폐하고 영주가 직접 경영하므로 이를 타개하고자 했다.

당시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였다. 교회의 재산(토지)의 축적을 위한 교회지도자들의 탐욕은 교인들의 영적지도에서 멀어졌으며, 세속권력 장악에 몰수하게 되었고 주교는 때로는 세속적 주권자나 일반군주로 전락되기도 했다.

그 후 신대륙 발견으로 인한 해외무역 융성과 금, 은의 유입은 물가앙등의 요인이 되며, 화폐경제의 발달에 따라 화폐의 지출이 현저하게 증대되는 반면에 교황청 관리인의 수가 점점 증가함으로 인한 잡다한 지출이 증대되자, 이에 대한 재정적 빈곤이 심화되어 갔으며 이로 인한 교직매매(simony), 면죄부판매라는 타락의 양상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 경제적 악순환 속에서 대

중들은 사회적 개혁을 시도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시도들은 1476년 Nikla Shausen에서 발생했던 Hans Bohm의 사회운동과 1493년 Elsass에서의 Bund Schuh 운동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가슴에 안고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으며, 종교개혁을 기화로 일어난 기사적 난(1522)과 재세례파 운동은 혁명의 화신으로 승화되었던 것이며, 타오르는 사회개혁운동의 climax은 1525년 토마스 뮌저를 중심으로 분출한 “농민전쟁”이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16세기의 독일의 전 영역에 걸쳐서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16세기 독일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의 계기는 물론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르네상스로 인한 인간성 회복, 자아발견의 국면도 있겠지만, ‘루터의 종교개혁의 직접적인 결과’였다.

독일의 봉건적 신분제 국가가 해체되는 가운데 왕권과 국민의식의 바탕으로 한 통일적 국민국가의 형성으로 말미암아 로마교회의 영향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종교개혁의 여파로 인한 아우구스부르크 종교회의의 결정은 독일의 제국통일의 통로가 막히는 불운을 초래했으며 이로 인하여 독일은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 때까지 서구사회에서 그 주도권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대 국민국가 형성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제후중심으로 신앙적 자유가 허용됨으로 인해서 신교 각 파의 내분에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종교개혁 유산의 경제적 영향은 대단하였다.

상업의 부활과 도시의 발생과 화폐경제의 대두로 인하여 중세의 경제체제인 장

원을 중심으로 한 봉건체제는 붕괴의 길을 걷게 되었고 장원경제는 도시 교환경제에 입각한 새로운 자본가의 생성 및 상인길드와 준프르트길드의 생성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형성되어 갔다. 종교개혁자 중 특히 칼빈파의 개혁은 자본주의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막스 베버, R.H Tawney는 말하고 있다. 또한 루터의 만인제사장 사상과 이신득의 사상은 농노해방문제를 대두시켰으며, 영주 및 귀족의 착취에 대한 농민전쟁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농민전쟁에서의 농민의 패배는 독일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상실케 되는 계기가 되었고 독일의 후진성과 문화발전이 오랫동안 지연되는 역사적 원인을 낳았다고 볼 수 있겠다.

격동을 겪고 난 뒤 독일의 비텐베르크 중심으로 Lutheranism이 '영방교회제'를 형성케 되었고, 종교개혁으로 인한 루터의 독일어 성서 번역은 독일뿐만 아니라, 독일어 문화권에 크나큰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모국어통일, 진보시키는데 일의 담당했으며 독일 민족정신을 집약시킴으로 독일 민족을 하나되게 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P.H. Leach 교수가 지적해준 대로 “마틴 루터는 종교에서와 같이 교육에 있어서도 중요한 개혁을 가져왔다. ... 교육의 이론과 실천에 대한 대부분의 루터의 이념은 교육계에 있는 현대 지도자들의 의견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종교개혁의 유산은 독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뿐만 아니라 교육, 역사학 분야까지에 이르는 방대한 영향을 미친 일대 개혁이었다.

그러나, 본 논문은 종교개혁의 독일사회에 미친 영향을 고찰함으로써 인하여 독일 민족의 사상적 배경을 형성한 르네상스의 유산과 정신을 연결하여 논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기며, 본 논문의 한계점이라고 생각한다.

BIBLIOGRAPHY

I. 국내 서적

- 홍치모, 종교개혁사. (서울:성광문화사, 1979).
- 민석홍, 서양사 개론. (서울:삼영사, 1988).
- _____, 서양근대사 연구. (서울:일조각, 1972).
- 차하순, 서양사 총론. (서울:탐구당, 1982).
- 최문환, 근대 사회사상사. (서울:삼영사,).
- 장일조, 사회운동 이념사. (서울:전망사, 1979).
- 지원용, 루터의 정치사상. (서울:컨콜디아서, 1986).
- 조기준, 신 경제사. (서울:일신사, 1972).
- 최문환 외 3인 공저, 경제사. (서울:박영사, 1980).

II. 국내 논문

- 이형기, 종교개혁의 사회사적 배경. 「기상」 1978년. 10월호
- 노명식, 종교개혁의 사회적 정치적 배경. 「기상」 1978년. 10월호.
- 김성식, 종교개혁의 역사적 배경. 「신학논단」 10집.
- 지인성, 16세기 종교개혁의 사회적 배경에 관한 연구. <한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길섭, 16세기 종교개혁의 발전사. 「기상」 1978년. 10월호.
- 이대섭, Lutheranism의 성립과정과 그 사회적 성격. <고려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64>
- 허 긴, 독일영방교회의 형성과정.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원, 1962>.

III. 外國서적 및 논문

모이어, E.S., 곽안전 역, 「인물증심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0>.

릴레, 한스., 마틴 루터, 차일용 역 <서울: 탐구당, 1978>.

Bainton, R.H., The Reformation of 16Century <London: Hodder stoughton Ltd, 1957>.

Burns, Edward McNall., Western Civilization. <New York: W.W. Norton and Company, INC>.

Banaclough, G., The Origin of Modern Germany <Oxford, Basil Blacknoll, 1957>.

Cairns, Earle E., Christianity through the Century. <Michigan: Academic Book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1>.

Dobb, Maurice., Studies in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1947>.

Bainton, R.H., The Age of the Reformation <Anvil Book, 1956>.

_____ , Studies on the Reformation <Boston, Beacon, 1966>.

Ferguson, Wallace K., and Bruun, Geoffery., A Survey of European Civilization (Vol II,

Third Edition>.

Gay, Perter., and Webb, R.K., Modern Europe to 1815 <박무성 역, 서울: 법문사>.

Grim, H., The Reformation Era 1500-1600 <New York: Macmillian, 1953>.

Green, Robert W., Protestant and Capitalism <Boston: D.C. Heathly and Company, 1959>.

Graham, W. Fred., The Constuctive Revolution John Calvin and His Social-Economic Impact

<Richmand: Virginia, John Knox Press, 1971>.

Harbison, E.H., The Age of the Reformation <Connell Univ. Press, 1965>.

Jensen, De Lamar., Reformation Europe <Toronto: D.C. Healthe and Company, 1981>.

Joachimsen, P., Die Reformation als Epoche der Deutschen Geschichte <Munchen, kaiser

verlag, 1951).

Latourette, T.M., A History of Christianity, Vol I (N.Y:Harper and Row, 1975).

Loutchisky, J., L'etat des classes agricoles en France ala veille de la Revolution:1970.

Luther, Martin., Three Treaties (Philadelphia:Fortress Press, 1978).

Porler, J.M., Luther:Selected Political Writings (한글판:홍치모 역, 루터의 정치사상, 컨콜
디아서, 1985).

Postan(ed), M.M., Cambridge Economic History of Europe, Vol I. (Cambridge:The University
Press, 1966)

Ranke, L.Von., The History of the Pope, Vol I. (trans, by Foster:London, 1847).

Ranke, L.Von., Deutsche im Zeitalter der Reformation (Koln, phaidon Verlag).

Reid, W.Stanford., "John Calvin, The father of Capitalism?" (Themelios, 1983, 1월).

Spitz, Lewis W., The Reformation (한국판:서영일 역,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1983).

Schwiebert, E.G., Luther and His time (Saintlouis, Concordia publishing, 1950).

Schaff, Philip.,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VI (Michigan: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4).

Smith, P., The Age of the Reformation (N.Y.:Holf, 1936).

Thorndike, L., The History of Medieval Europe (Boston Hughton Hifflin Co. 1928).

Tawney, R.H., Religion and the Rise of Capitalism, Menfor Books, 1953. (한글판:이경식 역,
전망사, 1983).

Troelsch, Ernst., The Social Teaching of the Christian Churches:trans by Olive Wyon
(London:George Allen and Unwin Ltd. 1931, Vol II.).

_____, Geschichte der Christich Religion 2nd(ed) (Berlin B.G. Tember, 1909).

Walker, W., The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한글판: 세계기독교회사, 대한기독교출판사, 1977>.

Whitney, J.P., The History of the Reformation <London: S.L.C.K. 1958>.

Walker, G.S.M., Calvin and the Church.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Vol. XII, 1963>.

Williams, George H., Radical Reformation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2>.

Wood, A. Skevington., Captive to the word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69>.